

한전KP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발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 KPS(사장적무대행 맹동열)는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인 전력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공기업으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KPS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

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전KPS는 매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협력사의 시공품질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ISO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 취득 지원 등의 역량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해외사업 동반진출 등 판로 개척 지원, 정비공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기술교육 시행 등의 인력양성 지원, 선급금 지급 확대와 공공구매론, 협력기업대출 등 금융 지원, 보유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 시행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KPS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간제 근로자 29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으며,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건과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전KPS는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봉사단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희망터전만들기'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엘로카펫'을 설치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 그리고 어린이 학습지원, 문화체험 도우미 활동 등의 일반봉사활동 및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금후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은 지난해 어린이 건강·교육·안전에 대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어린이대상' 행적 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12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의 영예



를 안은 바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한전KPS는 앞으로도 나눔과 소통의 실천에 앞장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ICT산업 고도화 추진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ICT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KDN은 올해 '사회적가치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협력연구개발 사업 공모, 중소기업 온라인 무상 직무교육, 중소기업 품질 간담회,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과 함께 신성장·해외 사업 공동 진출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과 ICT를 통합해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서 전력ICT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협업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한전KDN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신규 매출 500억원(5년간) 창출에 기여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신사업에도 공동 진출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에도 힘썼다.

특히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업계 최초 에너지 ICT특화 창업 교육을 시행했으며, 사



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4개사를 선정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협력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에 공동 진출해 매출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또 사회적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compact(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2017년에는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을 동시 수상한 바 있다.

한전KDN은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본사와 사업소 14개 봉사대로 구성된 '한전KDN 한마음 봉사단'은 CEO와 전 직원이 참여해 ICT지원사업을 위주로 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과 육성 지원사업, 인재양성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ICT특화 S/W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정형석 기자

'케셈 창업지원단'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상생의 토대를 일구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청소와 경비, 콜센터 상담원 등 사내 용역·기간제 근로자 1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기간제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 112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 130명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전환예외 사유 대상자 15명을 제외한 11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올 초 인사발령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단 시간 청소용역 근로자 37명이 포함된 가운데,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기간제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공사 노사는 이 같은 정규직 전환에 소요될 재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복리후생 또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신규 채용을 실시하되 비정규직은 따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기안전관리 분야 창업 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케셈 (KESM: KE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지원단'을 지난 1월 발족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의 기술 수준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발전 컨설팅기업 에스테크와 민간 공사업체 한솔ENC가 함께 참여한 케셈 창업지원단은 앞으로 전

기안전관리 대행·위탁관리, 신재생 에너지 시설안전 분야 예비 창업인들을 위해 창업에 관한 법·제도 절차 안내는 물론, 계측장비 구입요령 및 사용법 등 각종 실무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조성원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이야말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앞으로 정부, 자치단체, 민간기업과의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에너지를 지키는 일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생존문제로 연결되는 지금 에너지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를 넘어 지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슈퍼맨이 에너지는 SK E&S가 지킵니다.

E에너지 S슈퍼맨

코원에너지서비스 | 부산도시가스 | 영남에너지서비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강원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